

‘편입(編入)’

김세권

제주대학교 철학과에 편입을 해서 한 학년을 편입생으로 지내며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 철학과 학우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학기 초 떠올렸던 여러 가지 생각들과 철학과 학우들의 행동에 신선함을 느꼈던 점을 몇 글자 적어 내려가 볼까 합니다.

가끔 단어를 그저 상식으로 규정짓고 그것에 맞춰서 이해하고 합니다. 제가 생각한 ‘편입’ 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은 기존의 틀과는 섞일 수 없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재학생들도 마찬가지로였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3학년으로 들어오는 편입생은 1학년 때부터 학과 생활을 해온 재학생과 유대감 형성도 어려우며 그렇다고 형성을 위한 노력을 편입생이 하기에는 같은 학과 내에서도 입지가 모자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적인 점을 반영 했을 때 사실 편입생과 기존 재학생들의 사이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편입을 한 학생들은 처음부터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과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부분은 부정할 수 없었으며 또한 편입생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선이 달갑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편입생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를 서로가 갖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서로 관심 필요성의 부재가 서로 어울리지 않을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느꼈지만 그렇다고 개선방안이 딱히 떠오르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재학생은 재학생대로 편입생은 편입생대로 생각이고 고정돼 있으며, 재학생의 고정관념은 편입생의 근본을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만들어 내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고, 재학생 입장에서

■ 대학생활의 울림

는 사실 편입생이 없어도 그만인 것이고 더 심각하게 나아가 불편하다고 오판하는 것으로 미리 접근가능성을 차단한다고 생각하며, 편입생의 고정관념 또한 애초의 목적이 공부에 고정이 돼있어서 학과생활을 할 필요성도 없고 재학생과 어울려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줄 알았습니다. 둘 다 이렇듯 애초에 그렇게 벽을 만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 했습니다.

하지만 철학과 학우들은 제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아, 저와 다른 것이 아니고 이러한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먼저 한 학년 먼저 편입하신 형 누나들이 나중에 들어온 편입생들을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챙기며 어울림이 자연스러워 졌습니다. 또한 회장 승수형과 부회장 승민이형도 적극적으로 편입생들과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학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이해타산을 맞추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학과 학생으로서 친분을 다지는 것, 함께 하는 것, 저는 너무 쉽게 본인의 상식의 착각과 오판 속에서 벽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한번쯤 막연하게 편입생과 재학생을 구분지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지금 이렇게 모두 함께 잘 지내고 있음에 제가 했었던 잘못된 생각에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이미 학우들은 고정된 틀을 인지조차 하지 않고 편입생을 편입생으로 대하지 않고 그저 같은 학우로 대하고 있었으며 제가 위에서 열심히 열거한 부정적인 모든 것들 그것은 저만의 한정된 생각이었습니다.

이미 학우들은 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정관념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었음을 느끼며 저도 다음 편입생이 오더라도 이러한 철학의 신선한 경험을 교재가 아닌 직접 건네주고자 노력 할 것입니다. 제가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만큼 이것을 전달해 주고 싶고 함께 공감하고 싶고 다음 학년에 철학과에 들어오는 모든 학우들에게도 이런 감정을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 끝으로 내년에도 함께

하는 철학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대로와 함께한 순간들

▶ 오리엔테이션 & 새내기배움터



새로운 사람, 새로운 장소, 새로운 경험이 시작되는 오리엔테이션(OT:Orientation). 이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함께 있던 사람들과 곱씹게 되는 경험을 주었습니다.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이지만, 앞으로는 동기이며 선배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돌이켜 보면 상당히 어리고 웃긴 언행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만큼의 이야기 거리와 학교생활 노하우를 얻게 되어 뜻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새터(새내기 배움터)는 학교생활에 크지는 않지만, 적지도 않은 영향을 줬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과의 사람이 같은 조에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엔 매우 불편하고 기댈 곳이 없어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보니 같은 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과의 동기들과 친해지는 계기가 마련되는 하나의 기회였습니다. 다시 말해 새터는 저에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준 자리였습니다.

- 15 유시후